‘빛의 도시’ 광주 랜드마크 세운다

경관조망 시설·상징조형물 설치 용역 최근 발주

잣고개·지산유원지·송산교 등 9곳 타당성 조사

빛의 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조망시설과 상징 조형물 등 랜드마크 설치가 본격화 된다.

빛과 인권이라는 광주의 정체성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광주의 관문과 도심에 설치함으로써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 경관조망 시설 및 상징조형물 설치기본계획’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용역은 내년 5월까지 진행되며 과업내용은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시는 경관 조망시설 설치 지역으로 잣고개 전망대, 지산유원지, 송정공원, 서광주역 뒷산 팔각정 등 4곳을 선정, 타당성 조사를 맡기기로 했다.

상징 조형물 설치 장소로 검토되고 있는 곳은 동림IC, 송산교, 지원IC, 한두재(나주), 동광주IC 등 5곳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 2억7천여만원을 확보했으며, 용역 결과가 제출되는 내년 하반기에 현상공모를 거쳐 상징조형물 설치작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시는 빛, 예술, 문화중심도시 등 광주의 대표적인 아이콘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또 상징조형물과 조망시설 설치비 25억원을 내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민주·인권· 평화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디자인 명품도시’ 건설 사업 가운데 하나다.

디자인 명품도시 주요 사업에는 ‘광주 경관조망 시설 및 상징조형물’ 건립 사업은 물론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사업 ▲환경친화적 공공예술 프로젝트 ▲디자인 도시 광주 선포식 개최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모두 12개 분야 사업을 선정, 오는 2014년까지 3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징 조형물과 조망시설이 광주 이미지를 대표하는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에이즈, 예방이 최선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인 1일 광주시와 각 구청과 함께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콘돔과 홍보물을 나눠주며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광주지역 에이즈 감염인은 103명으로 전국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큰 호응

남구보건소 재활 치료·24시간 응급 진료

광주시 남구보건소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방문치료가 어려운 노인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주간재활센터를 무료로 운영하고 120명의 거동불편 노인과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등 재활치료도 병행함으로써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남구보건소가 독거노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올 한해 동안 제공해 온 보건의료와 복지 연계서비스는 직접 간호서비스가 1만2천955회, 민간병원과 함께 제공한 전문의료서비스가 176회였으며, 복지서비스인 가사와 간병 대상자는 5천776명에 달했다.

또한 뇌졸중 등 거동 불편환자에 대한 재활의료기구 대여서비스가 140건, 4천220건의 건강호출제 및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응급시스템도 가동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민간병원과 보건소가 연계해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대상자가 원하는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공방

공무원노조 폐지 요구…광주시 “개선 후 지속”

광주지역 공무원노조와 광주시가 1일 ‘기초질서지키기 운동’과 이에 대한 평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역 공무원노조대표자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및 이에 대한 자치구 평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광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일부 자치구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돼 업무 공백이 생기고, 시의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며 “캠페인 평가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 운동은 광주시민의 기초질서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깎아내리는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에서 자치구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는 캠페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무조건적 균등지원은 불가하다”며 “순위 발표에 따른 자치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위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기초질서 지키기는 ‘교통사고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적극 추진해왔고 생활화 단계까지 지속돼야 한다”며 “공무원 강제동원을 지시한 바 없고 시민사회단체와 동별 자생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해온 만큼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치구, 노조,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도심 도로 2배 이상 밝아졌다

내방·상무·무등로 등 노후 가로등 1,380개 교체

‘시내 도로가 밝아졌어요’

광주시가 올해 35.5㎞에 이르는 시내 주요 도로의 노후 가로등을 교체한 결과 두 배 이상 밝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으로 내방로(광천1교~광명하이츠), 무등로(광주역~동운고가), 상무로(농성광장~극락교), 북문로(동운고가~산동교) 구간의 노후가로등 1천380개를 교체한 결과 15룩스 이하이던 조도가 35룩스 이상으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는 30룩스 이상으로 규정된 ‘도로조명 설치기준 및 관리규정’상 자동차 전용도로의 조도 보다 5룩스 높은 것으로, 야간 운행을 하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교통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서구 내방로 구간 노후 가로등 교체 전〈왼쪽〉과 교체 후 모습.

시는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및 문화수도에 걸맞는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무로의 극락교~공항 입구(2.6㎞)와 월드컵 4강로(기아자동차~염주체육관, 6㎞) 구간의 가로등을 교체하고 외지인들에게 밝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광주역과 대인광장, 송정역 광장에 15m 높이의 조명타워를 설치했다. 이 달에는 경열로(농성광장~광주역) 구간 교체 공사를 시작하고 시내 주요 간선도로 36개 노선, 44개 구간을 선정해 고효율 램프 4천여등을 교체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제1순환도로 구간인 대남로, 필문로, 서암로, 죽봉로 등의 노후 가로등 1천60개를 교체할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